

# OECD 국민계정 작업반회의 참가결과 보고

2009. 11.



통 계 청

## 1. 회의 개요

### □ 회의 목적

- 회원국간 국민계정 작성경험을 교류하고, 세부 추계기법 등 연구 관련 국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유대를 강화

### □ 회의 기간 및 장소

- 회의 기간 : 2009. 11. 4.(수) ~ 11. 6.(금)
- 회의 장소 : OECD Conference Centre (프랑스 파리)

### □ 참석자 현황

- OECD 회원국 및 가입 후보국 대표, 국제기구(UN, IMF, ECB, EUROSTAT) 대표 등 (100여명 참석)
- 한국 : 통계청 2명, 한국은행 1명

## 2. 주요 회의 내용

### ① 2008 SNA 이행

- 2008 SNA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OECD, UNSD, EUROSTAT 등의 이행계획 및 전략을 설명
- 국제적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각국은 이행예정 시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요청 (한국은 2014년 이행 예정)
- 호주 사례 : 2008 SNA 및 BPM6 이행결과를 금년 말에 발표 (시계열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행하려고 노력\*)
  - \* 기존시계열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변화분만 반영, 기존시계열의 계절성도 유지

### ② 제도부문 분기계정(Quarterly Sectoral Accounts) 작성

- 경제·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비교가 가능하면서 시의성

있는 분기 국민계정 통계 작성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, 향후 QSA에 관한 질문과 자료수집에 대해 협조를 요청

- EUROSTAT는 EU국가의 QSA 작성현황 및 분석결과를 발표 → GDP를 이용한 각종 지표\*의 유용성을 설명

\* 성장률, 가계 저축률, 비금융기업 투자율 및 이익률 등

### ③ 금융위기와 경제지표(국민계정)

- 최근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각국의 경제조치가 국민계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례발표를 통해 논의
  - 자동차세 감면, 신규주택 구입 지원 및 세제혜택 등과 같은 조치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전소득 등의 변화가 있음을 설명(미국)
  - 금융/경제 조치의 내용과 국민계정(소득계정 및 금융계정)에의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(네덜란드)

- 세계화 충격에 대한 전문가 연구 결과(UNECE)와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순환을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접근방법\*(네덜란드)도 소개

\* Business Cycle Tracer : 좌표 축에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(증가율과 상대수준)을 표시하여 경기의 상승과 하강을 표현한 뷰어(Viewer)

⇒ **(코멘트)** 한국도 경기순환시계(Business Cycle Clock)를 개발하고 있고, 현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으며, 내년에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임

- 이러한 아이디어는 경제 및 금융 소요 또는 위기의 징후들을 점검하는데 훌륭하며, OECD, EUROSTAT, 독일도 유사한 뷰어를 갖고 있음
- 한국은 1981년 이후 선행/동행/후행 종합지수로 구성된 경기지표를 발표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경기동향을 분석하고 있음

#### ④ '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위원회' 보고

- 복지(well-being) 측정과 관련하여 생산보다는 소득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장 측정을 위해 물질적 수준 뿐만 아니라 건강, 교육, 환경 등도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(스티글리츠 위원회)
  - 사회발전의 측정에 대해서는 실질GDI, 소비, 가계의 부 등과 건강, 교육, 문화와 레저 등을 포함하는 측정 사례(호주)와 복지와 삶의 질의 측정에 대한 연구(프랑스)도 제시되었음
- ⇒ **(코멘트)** 한국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 이 지수는 종합지수 접근법에 의해 많은 사회지표로 작성될 것임
- 사회발전 측정은 복잡한 이슈이고 이를 다루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과 보고서의 많은 부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GDP의 한계에 대해 공감함
  - 가계의 조정처분가능소득은 복지 관점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, 삶의 질에 대한 개인들 총합으로서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

#### ⑤ 공공부문통계

- 공공부문(일반정부, 공기업)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고,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대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면서 자세한 자료 수집과 분석 필요성 설명(OECD, IMF)
  -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국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부문(일반정부 포함) 통계에 대한 자세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
- ⇒ **(코멘트)** 공공부문 리스트(정부와 공기업)가 국가 차원에서 활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며, 관련된 통계조직에 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음. 이러한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임
- 왜냐하면 분류 기준이나 규칙에 의한 판단은 국민계정이나 경제통계 작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
  - 또한 제도단위를 정부, 공기업, 시장생산자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

기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 분류기준에 대한 메타 데이터는 사용자를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음

## ⑥ 연간 및 분기 국민계정자료 제공

- OECD는 매년·매분기별 국민계정을 포함한 경제통계를 회원국 으로부터 제공받아 간행물, CD-ROM, 웹 등의 형태로 제공
- 국제기구들에 여러 번 제공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자료의 갱신도 신속히 할 수 있는 NAWWE(National Accounts World Wide Exchange)\*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

\* XML(eXtensible Markup Language, 확장생성언어)를 이용하여 웹상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미국이 이용

## ⑦ 기타 주제

- OECD 가입 후보국(칠레, 이스라엘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)\*의 통계 평가 결과와 지적재산 생산물의 자본측정 핸드북도 소개
- \* 러시아의 경우(담당 팀장 : Tim Davis), 통계시스템 및 관련자료 수집 지연으로 평가를 2010년으로 연기
- 국민계정에서의 배출권처리 연구 결과, 국민계정 분석에 활용할 노동시간 데이터 수집현황, PPP 프로그램 갱신 및 보건지출 자료, 향후 SNA연구분야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도 있었음

⇒ **(코멘트)** 소득 개념은 통계생산자와 이용자에 의해 연구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,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임 (예: 소득개념의 명확화, 미시·거시 차원의 가처분소득 이해 및 홍보)

- 국민계정의 소득 개념은 거시적인 총계 데이터인데, 경제주체의 행태를 분석하고 사회의 처분가능한 자원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나, 실제 느끼는 처분가능한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음
- 사회구성원이 쉽게 이해하는 소득은 미시적 차원으로 가계조사에 의해 수집된 소득 데이터임
- 따라서 애널리스트가 사용하는 거시적 차원의 소득과 개인들이 미시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소득 간에 괴리가 있음